

여자 고등학생들의 체격에 따른 성격특성

최우금*, 이성국**

Personality factors on the Anthropometric Condition in High School Girl Students

Woo Kum Choi, Sung Kook Lee

Abstract

To study between the anthropometric conditions and personality factors of high school girl students, a simple questionnaires and personality test were administrated to 385 high school girl students on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in Taegu city.

Students surveyed were divided into 3 groups by using BMI : they are 131 thin group, 157 normal group, and 97 obese group.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

They recognized exactly about obese status of themselves ($p < 0.001$).

The rate in obese group was more than in thin group for question 'don't like snacks' but there was not significant relationship statistically.

The number in obese group was lesser than thin group for snacks before sleeping, a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statistically ($p < 0.05$).

About sports, obese group had more favorite than thin group, and there was also significant relationship statistically ($p < 0.05$).

The rate of Mothers' occupation in the obese group was higher than in the thin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statistically.

In personality test, obese group had stronger dominance, which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p < 0.01$) and concerning reflectiveness thin group, which was of great use ($p < 0.05$). In other 7 catego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statistically among those 3 groups.

* 대구 남산여자고등학교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I. 서 론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로 보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어른과 같으나 정신적인 성숙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서 신체적 성숙과 정신적 성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여 조그마한 일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특히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비사한 관심을 갖고 사소한 변화나 상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조사 결과에서 보면, 몹시 여위다든지 비만하다는 자신의 체격에 대한 인지도 이시기에 정신적인 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주태 : 1980).

체격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성장 및 발달을 나타내주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몸의 구성비의 적정성과 정상적인 체위를 나타내 주므로 매우 중요하며(문현경 : 1988),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에게 있어서 체격은 생물학적인 면이나 건강관리면에서 뿐만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격의 정의를 Allport는 그의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특징짓는 심리, 신체적 체계들을 지닌 개인의 역동적인 조직으로 정의했고(서봉연 1981) Lazarus는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인내의 제반 구조의 고정적인 조직으로 정의했으며(이상로 1982) Eysenck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징적으로 독특하게 보이는 개체의 모든 인식적 감정적 의지적 및 신체적 특징의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문교부 1973).

이처럼 성격은 정신 물리적 통일체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신체가 성격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의 강약이 성격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키가 작고 약한 사람은 안정성이 낮고 키가 크고 강한 사람은 남 앞에 서슴없이 나서며 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갖게 된다(문교부 1973).

어떤 연구에서는 (김기남 : 1982) 비만한 학

생들은 남앞에 서기를 꺼리며 동료 선배들과 적응하기 힘들어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기도하고 심하면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으로 인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어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Held, M. L. and D.L. Snow : 1972) 비만아는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발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적응이 어렵고 열등감등을 경험하여 인격형성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체력상태에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또다른 연구에서는 BMI(Body Mass Index)와 인성간에 큰 관련이 없다고 보고했으며(문현경 : 1988) 사춘기의 여학생들에 있어서도 체격의 정도와 인성간에는 관련이 별로 없다고 되어있다(鈴木慎次郎,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체격과 인성과의 관계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봄으로써 이들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여 실시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대구시내 1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2학년 1,300명 전원을 대상으로하여 1990년 3월중에 설문지조사와 성격검사를 실시했다.

설문지 내용은 자신의 비만에 관한 주관적인 인지, 간식 선호도, 운동 선호도이었고, 생활 기록부에서 어머니학력, 어머니직업 여부, 사회경제적 상태들 조사하였다.

또한 1990년 4월중에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신장 155 cm ~ 165 cm 사이의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남은 학생을 대상으로, 체격의 비만도를 비교적 잘 나타내주는 BMI를 사용하여 BMI가 ~ 19.9이하를 야원군으로, BMI가 20~24.9를 정상군으로 BMI가 25~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했다. 이 중에서 정상군은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이렇게 하여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은 야원군 131명, 정상군 157명, 비만군 97명 등 총 385명 이었다.

성격검사는 Korean Testing Center에서 발행한 인성검사지를 사용하여 기술척도로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자율성, 사려성등 6개 특성을 검사하고, 임상척도로 불안경향, 우울경향, 편집경향등 3개 특성을 검사했다. 각 척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매우 정력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첩하고 부지런하며, 일을 좋아하고 또한 많은 일을 해내는 인성특성.

○ 안정성: 여기서의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는 안정, 성숙되어 있고 극단적인 회노애락의 감정에 호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침착하고 비교적 마음의 동요가 적은 인성특성.

○ 지배성: 집단활동에서 지휘감독하는 지도적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고집이 세고 공격적이며 대담하고 권위주의적인 인성특성.

○ 사회성: 사회활동이나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며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대인 적응성이 강한 인성특성.

○ 자율성: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며 스스로의 행위를 제어하고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이고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기나름의 독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하는 주체적인 인성특성.

○ 사려성: 심사숙고하고 행동보다 사색을 즐기며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잘 조절하고 억제하며 이론적 내성적인 인성특성.

○ 불안경향: 뚜렷한 이유없이 막연하게 위협을 느끼고 긴장하며 걱정이 많고,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 곧 생길것 같은 초조감에 사로잡히는 신경증적 경향.

○ 우울경향: 삶의 의미를 잃은 상태에서 심한 절망감, 무기력감, 주관적 불행감을 느끼고

모든것에 흥미를 상실하는 신경증적 경향.

○ 편집경향: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것에 대하여 그렇다고 굳게 믿는 각종 망상, 과도한 집착이나 의심, 과민성 등이 정신병적 경향.

위의 척도들은 9개의 특성항목에 대해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하게 하였고 그결과를 점수가 높으면 그러한 특성이 많으며 점수가 낮으면 그 특성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분위 0~24.9를 그 특성이 적은 것으로, 25~74.9를 정상으로, 75이상을 많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에 성격검사에 피검사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당면한 문제 등을 얼마나 솔직하고 성실하게 나타냈는가를 알아보는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척도의 백분위가 16이하인 학생은 그 검사결과를 믿기 어려우므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III. 성 적

1. 체격에 따른 신장, 체중, BMI

조사대상들의 평균신장과 체중은 야원군이 160.5 cm, 45.7 kg이며 정상군이 160.0 cm, 58.6 kg이며 비만군이 159.5 cm, 69.6 kg이었다. 이들의 신장과 체중으로 BMI를 구하면 각각 17.7, 22.8 27.3으로서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표 1).

2. 비만에 관한 주관적인 인지

비만에 관한 주관적인 인지의 정도를 각군 별로 보면 본인이 비만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이 80.4%,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야원군에 속하는 비율이 98.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01$)(표 2).

<표 1>

체격에 따른 신장, 체중, BMI

	야원군 (n=131) X±S.D.	정상군 (n=157) X±S.D.	비만군 (n=97) X±S.D.
신장(cm)	160.5±2.90	160.0±2.88	159.5±4.09
체중(kg)	45.7±3.14	58.6±4.37	69.6±6.89
BMI*	17.7±0.99	22.8±1.39	27.3±2.18

* : $P < 0.001$

〈表 2〉

비만에 관한 주관적인 인지

주관적인 인지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비만이라 생각 한다.	2	1.5	81	51.6	78	80.4	161	41.8
비만이 아니라 생각 한다.	129	98.5	76	48.4	19	19.6	224	58.2

$\chi^2_{0.05}(2) = 152.95$ $P < 0.001$

〈表 3〉

간식 형태별 분포

간식선호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좋아한다	121	92.4	141	89.8	82	84.5	334	89.4
좋아하지 않는다	10	7.6	16	10.2	15	15.5	41	10.6

$\chi^2_{0.05}(2) = 3.65$ NS*

취침전 간식 여부	16	12.2	6	3.8	4	4.1	26	6.0
꼭 먹는다	94	71.8	125	79.6	69	71.1	228	74.8
가끔 먹는다	21	16.0	26	16.6	24	24.7	71	18.4
안먹는다								

$\chi^2_{0.05}(4) = 12.40$ $P < 0.05$

* not significant

3. 간식 형태별 분포

간식 선호도와 취침전 간식 여부에 대한 현재의 습관을 물어본 결과, 간식 선호도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야원군이 7.6%, 정상군이 10.2%, 비만군이 15.5%로써 비만군이 간식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취침전 간식 여부에 있어서는 꼭 먹는다고 답한 야원군이 12.2%, 정상군이 3.8%, 비만군이 4.1%로 야원군이 가장 많았고 안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야원군이 16.0%, 정상군이 16.6%, 비만군이 24.7%로 비만군이 가장 많았으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표 3).

4.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유무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있는 사람의 경우가 야원군이 32.8%, 정상

군이 48.4%, 비만군이 46.4%로 비만군이 현재 하고있는 운동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표 4).

〈表 4〉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유무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있다	43	32.8	76	48.4	45	46.4	164	42.6
없다	88	67.2	81	51.6	52	53.6	221	57.4

$\chi^2_{0.05}(2) = 7.86$ $P < 0.05$

5.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야원군이 14.5%, 정상군이 19.1%, 비만군이 22.7%로 비만군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5).

〈表 5〉 어머니 직업 유무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있다	19	14.5	30	19.1	22	22.7	71	18.4
없다.	112	85.5	127	80.9	75	77.3	314	81.6

$X^2_{0.05}=2.56$ NS

6.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은 전체 대상자 중에서 대졸이상 이 야원군이 13.0%, 정상군이 11.5%, 비만군이 13.4%이며 어머니의 학력과 각군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6).

〈表 6〉 어머니 학력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대졸이상	17	13.0	18	11.5	13	13.4	48	12.5
고졸	62	47.3	79	50.3	45	46.4	186	48.3
중졸	41	31.3	49	31.2	28	28.9	118	30.6
국졸이하	11	8.4	11	7.0	11	11.3	33	8.6

$X^2_{0.05}(6)=1.96$ NS

7. 사회경제적계층

사회경제적계층 분류는 Hollingshead와 Redlich의 방법을 사용해서(김광일 : 1983) 5계층으로 분류했다. 본 조사 대상자 중에는 5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없었고 전체 대상자는 2, 3, 4계층에 대부분이 고루 속하였으며 각 군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7).

〈表 7〉 사회경제적 계층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1계층	4	3.0	5	3.2	3	3.1	12	3.1
2계층	42	32.1	52	33.1	35	36.1	129	33.5
3계층	51	38.9	55	35.0	31	32.0	137	35.6
4계층	34	26.0	45	28.7	28	28.8	107	27.8

$X^2_{0.05}(6)=1.31$ NS

1계층 : 고등전문직, 고등경영직

2계층 : 중간전문직, 기업체나 정부의 중견간부직
3계층 : 계장급 회사원, 중간급상인, 중간급기술자
4계층 : 기능공, 소규모 상인, 말단회사원

8. 성격특성

기술척도의 결과는 활동성의 경우,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32.8%, 정상군이 29.3%, 비만군이 28.9%로써 야원군이 가장 많았고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0.6%, 정상군이 24.2%, 비만군이 19.6%로 비만군이 가장 적었으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8).

〈表 8〉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유무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43	32.8	46	29.3	28	28.9	117	30.4
25~74.9	61	46.6	73	46.5	50	51.5	184	47.8
75~100	27	20.6	38	24.2	19	19.6	84	21.8

$X^2_{0.05}(4)=1.49$ NS

안정성의 경우에는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2.1%, 정상군이 19.7%, 비만군이 18.6%이며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3.7%, 정상군이 24.8%, 비만군이 35.1%로 비만군이 높은 경향을 보이 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9).

〈表 9〉 안정성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29	22.1	31	19.7	18	18.6	78	20.3
25~74.9	71	54.2	87	55.4	45	46.4	203	52.7
75~100	31	23.7	39	24.8	34	35.1	104	27.0

$X^2_{0.05}(4)=4.53$ NS

지배성의 경우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9.8%, 정상군이 14.6%, 비만군이 19.6%이고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1.4%, 정상군이 26.8%, 비만군이 34.0%로 비만군이 높았고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1$)(표 10).

〈表 10〉 지배성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39	29.8	23	14.6	19	19.6	81	21.0
25~74.9	64	48.9	92	58.6	45	46.4	201	52.2
75~100	28	21.4	42	26.8	33	34.0	103	26.8

$X^2_{0.05}(4)=13.36$ $P<0.01$

사회성은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원군이 27.5%, 정상군이 16.6%, 비만군이 24.7%로 정상군이 가장 적고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31.3%, 정상군이 40.8%, 비만군이 34.0%로 정상군이 야원군이나 비만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11).

〈表 11〉 사회성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36	27.5	26	16.6	24	24.7	86	22.3
25~74.9	54	41.2	67	42.7	40	41.2	161	41.8
75~100	41	31.3	64	40.8	33	34.0	138	35.8

$X^2_{0.05}(4)=6.10$ NS

자율성의 경우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원군이 32.8%, 정상군이 21.7%, 비만군이 26.8%이고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2.1%, 정상군이 25.5%, 비만군이 24.7%로 야원군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12).

〈表 12〉 자율성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43	32.8	34	21.7	26	26.8	103	26.8
25~74.9	59	45.0	83	52.9	47	48.5	189	49.1
75~100	29	22.1	40	25.5	24	24.7	93	24.2

$X^2_{0.05}=4.58$ NS

사려성의 경우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원군이 26.0%, 정상군이 15.3%, 비만군

이 17.5%이고 백분위 75~100에 해당되는 사람이 야원군은 34.4%, 정상군은 33.1%, 비만군은 24.7%로 비만군이 야원군, 정상군에 비하여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5$)(표 13).

임상척도의 결과들 보면 불안경향은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원군이 사람이 야원군이 24.4%, 정상군이 25.5%, 비만군이 26.8%이고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8.2%, 정상군이 23.6%, 비만군이 24.7%로 야원군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14).

〈表 13〉 사려성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34	26.0	24	15.3	17	17.5	73	19.5
25~74.9	52	30.7	81	51.6	56	57.7	189	49.1
75~100	45	34.4	52	33.1	24	24.7	121	31.4

$X^2_{0.05}(4)=10.34$ $P<0.05$

〈表 14〉 불안경향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32	24.4	40	25.5	26	26.8	98	25.5
25~74.9	62	47.3	80	51.0	47	48.5	189	49.1
75~100	37	28.2	37	23.6	24	24.7	98	25.5

$X^2_{0.05}(4)=0.97$ NS

우울경향은 백분위 0~24.9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원군은 25.2%, 정상군은 28.7%, 비만군은 29.9%이며 백분위 75~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원군이 28.2%, 정상군이 20.4%, 비만군이 22.7%로 비만군이 야원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거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5).

〈表 15〉 우울경향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33	25.2	45	28.7	29	29.9	107	27.8
25~74.9	61	46.6	80	51.0	46	47.4	189	48.6
75~100	37	28.2	32	20.4	22	22.7	91	23.6

$X^2_{0.05}(4)=2.75$ NS

편집경향은 백분위 0~24.9에서 보면 야원군이 22.9%, 정상군이 24.2%, 비만군이 34.0%이며 75~100에서는 야원군이 20.6%, 정상군이 19.7% 비만군이 21.6%로 비만군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표 16).

〈表 16〉 편집경향

백분위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		계	
	No	%	No	%	No	%	No	%
0~24.9	30	22.9	38	24.2	33	34.0	101	26.2
25~74.9	74	56.5	88	56.1	43	44.3	205	53.2
75~100	27	20.6	31	19.7	21	21.6	79	20.5

$X^2_{(2)} = 5.09$ NS

IV. 고 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신적 발달의 미숙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한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의 몸맵시나 태도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에서 결함을 발견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강 주태, 1980). 이러한 외모에 대한 고민과 열등감이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비만과 여위다는 자신의 인지도 이시기의 정신적인 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鈴木慎次郎, 1985).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체격은 성격적인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청소년들의 체격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듯 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이론들은 다양한데 그중 몇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Hippocrates(서 봉연, 1981)는 체액을 혈액 점액 쓸개즙 흑담즙으로 나누고 이의 요소가 생물체내에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게 되면 완전한 기질을 만들지만 그 요소들이 지나치게 많든지 적든지 하면 불완전한 기질을 만든다는 기질론을 주장했다. 그는 다혈질, 점액질, 쓸개즙질, 우울질로

구분하고 다혈질은 체질이 비단하고 부드러우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내력이 약하며, 점액질로 목이 짧고 체격은 별로 좋지 않으며 인내심이 강하고, 쓸개즙질은 고집이 있으며 거만하고 결단성이 강하고, 우울질은 몸이 여위고 쾌활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ippocrates의 기질론은 오늘날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론이다.

정신분석학자 Jung(서 봉연, 1981)은 생활에 관한 두개의 태도 즉, 환경에 대한 두가지의 반응양식을 구별하였는데 심적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 태도를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구별하였다. 외향성은 외부에 관심이 많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며 자기를 외부에 나타내고 남도 자기와 같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몹시 사교적이며 집단적이다. 내향적은 주관에 치우치며 시적, 사색적, 비사교적인 성향이며 대체로 약하고 소극적이다.

Spranger의 생활양식론(문교부, 1973)은 인간은 누구든지 과학적, 경제적, 예술적, 사회적, 권력적,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여섯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성격을 경제형, 정치형, 학자형, 예술형, 사회형, 종교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Kretschmer는(KoLB, 1985) 체격과 성격에 대하여 가장 치밀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 정신병의 2대 유형인 조울병과 분열병 환자의 체격이 각각 비만형과 세장형임을 알아내어 인간 일반에 통하는 복합적 생물적 유형으로서 조울성 기질과 분열성 기질을 설정하고 체격을 비만형, 투사형, 세장형으로 구분했다. 비만형은 살이 쪼으며 긴장의 이완, 신체적 안락감과 발달이 사교성이 많고 조울적 경향이 있다고 하며, 투사형은 살갓 근육 골격의 발달이 양호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정력적이며 경쟁심이 강하고, 세장형은 신체발육이 불완전하며 키는 보통이나 몸무게가 얼마되어 보이지 않는게 특징이며 내성적이며 정신분열적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격과 관련된 영양 섭취 및 식습관에 관한 연구는 다수 발표된 바 있으나 체격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보고는 별로 없으며, 더우기 청소년기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격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체격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몇몇 연구의 결과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평균 체중은 55.2kg으로 전국 53.21kg, 대구 52kg(한국의 사회지표, 1987)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신장이 155~165cm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체중이 적은 154cm이하의 학생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비만 정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P < 0.001$),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 여학생들이 자기의 체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일본의 보고(鈴木權治郎 1985)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야원군에 속하는 학생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이것은 비만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체격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취침전 간식 여부에 있어서는, 비만군에서는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았으며 다른 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P < 0.05$),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사춘기 여학생들의 경우(鈴木權治郎, 1985)와 일치하며 자신의 비만을 인식하고 간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이 출현하는 시기가 태어나서 1세까지와 5~6세 및 사춘기 등이며 이러한 비만이 어른으로 까지 이행되는 바(Vaughan, 1981) 사춘기의 비만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칫잘못 음식을 줄이다가는 위험한 식생활이 되기 쉬우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영양섭취와 운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아동에 있어서 비만인 경우 활동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Stefanik, P.A., 1959)와는 달리 비만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P < 0.05$),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의 경우 비만인 경우에는 자신의 비만을 인식하고 비만을 줄이기 위하여 운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야원군보다 비만군에서 많았으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비만아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간 높다는 보고(하명주, 1985; 강영립, 1988)와 일치한다. 비만아 둘째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약간 높았다는 다른 보고(강영립, 1988; 서영경, 1989; 하명주, 1985)와는 달리 본 연구에는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을 여자 고등학생으로 통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회경제적 계층의 경우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보다 7배나 많다고 보고 하고(Vaughan, 1981)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체격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인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 집단 자체가 여러가지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체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성의 경우에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비만군이 야원군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키가 작고 약한 사람은 안정성이 낮고, 키가 크고 강한 사람은 안정성이 높다는 보고(문교부, 1973)와 일치한다. 지배성은 비만군이 야원군 보다 높아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P < 0.01$), 사려성의 경우 비만군이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사회성은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정상군이 야원군과 비만군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체격의 여학생이 야위거나 비만인 여학생 보다 대인관계가 더 완만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격특성의 임상적 척도인 불안경향, 우울경향, 편집경향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및 생화학적 반응의 측정이 특성이 유사한 집단에서 시행될 때는 대체로 일치한 차이가 없다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다른 보고(Fagin, C.M., 1987; Guzzetta, C.E., 1979; Lowery, B.J., 1987)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배성과 사려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현경(1988)과鈴木權次郎(1985)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체격과 성격특성간에 별다른 경향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극심한 비만이나 저 체중이 아니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V. 요 약

여자고등학생들의 체격에 따른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시내 1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1990년 3월 1일~4월 30일 까지 이들의 신장과 체중을 실제로 측정하여 BMI(Body Mass Index)를 구하고 간단한 설문조사 및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BMI를 이용해서 총 385명을 야원군 131명, 정상군 157명, 비만군 97명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비만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P < 0.001$).

간식 선호도는 야원군, 정상군, 비만군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식을 좋아했으며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야원군보다 비만군에서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취침전 간식 여부에서는 먹지 않는다는 사람이 야원군보다는 비만군에서 많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현재하고 있는 운동의 유무에서는 야원군보다 비만군에서 있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성격검사는 지배성에서 비만군이 다른군에서 비하여 높았고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P < 0.01$), 사려성은 야원군이 다른군에서 비하여 높았고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그외 7개 척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참 고 문 헌

1. 강영림, 백희영 : 서울시내 사립국민학교 아동의 비만 요동에 관한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21(5) : 283-284, 1988.
2. 강주태 : 청년심리학, 형설출판사, 1980.
3. 김광일, 원석택, 김이영, 김명정 : 고등학교 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1), 정신건강연구, 제 1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1983.
4. 김기남 : 식습관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미국 일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15(3) : 194-201, 1982.
5. 문교부 : 체육심리, 체육교육자료총서, 1973, 쪽. 220-243.
6. 문현경, 정해량, 김영찬, 김수희, 최해미, 김화영 : 국고 5년생의 체격에 따른 인구학적, 생화학적 요인 및 인성과 기타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1(4) : 213-222, 1988.
7. 서봉연 : 성격과 적응, 익문사, pp. 51-146, 1973.
8. 서영경 : 비만아동의 비만에 관련된 특성과 생활양상,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제출 논문, Dec, 1989.
9. 鈴木慎次郎, 野村 茂 : 生活と肥満, 醫齒藥出版株式會社, pp. 131-141, 1985.
10. 이기열, 이양자, 한희정 외 5인 : 영양 상태와 인지 및 인성 기능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9권, 제 4호, 1986.
11. 이상로 : 성격과 행동의 지도, 중앙적성연구소 출판부, 1982, 쪽. 12-143.
12. 이성국, 정정용 : 비행청소년의 인적 및 사회환경적 요인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의대지 별책, 27(1) : 82-92, 1986.
13. 이인열, 이일하 : 서울시내 사춘기 여학생의 비만 실태와 식이 섭취 영양 및 일반 환경 요인과 비만과의 관계, 한국영양학회지, 19(1) : 41-51, 1981.
14. 하명주 : 대도시 비만 아동의 비만 요인에 관련된 사회 조사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Dec., 1985.
15. 경제기획원 : 한국의 사회지표, 1987.
16. Fagin, C. M. : Stress, Implications for Nursing Research, Image 19(1) : 38-41, 1987.
17. D.G. Fohnston : Fundamentals of clinical endocrinology, chapter 17, obesity : pp. 374-389.
18. Guzzetts, C.E. :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earn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3) : 35-49, 1979.
19. Held M.L. and D.L. Snow : MMPI,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Problem Check List Score of Obese Adolescent Females, J. Clinical Psychology, 28(Oct.), 1972 : pp. 523-525.
20. Kelly D. Brownell : Obesity, Understanding

and Treating a Serious, Prevalent, and Refrac-tory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6) : 820-840, 1982.

21. Kolb, Brodie : Modern Clinical Psychiatry, Sau-nders Company, 1982.
22. Lowery, B.J. : Stress Research, s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mage. 19(1) : 42-46, 1987.
23. Obert, J.C. : Community nutrition, John Wiley & Sons, Inc., pp. 369-380, 1978.
24. Stefanik, P.A., Heald, F.P. and Mayer, J. : Caloric intake in relation to energy output of obese and nonobese adolescent boys, Clinical Nutrition(Jan-Feb), pp. 55-62, 1959.
25. Vaugha, Makay, Behrman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Saunders Company, p. 216, 1981.